

1997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 11. 20)」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9. 2. 8)」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류살리기로  
더 건강한  
한강을 만들어갑니다

#### 이 상 팔 | 한강유역환경청장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자연자원과장, 자연정책과장, 화학물질관리과장), (주)케나대사관 참사관 등 역임  
tel. 031-790-2403 | sang3859@korea.kr



그간 '99년부터 '11년까지 총 3조 9천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조성하여 상류 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한 결과, 팔당호 수질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BOD (mg/L) 1.1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인구 등 배출원 증가를 고려한다면 팔당호 수질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생각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미처리된 생활하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등 우리 주변 하천의 수질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강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오염지류·지천의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 오염지류 살리기 본격 추진

2010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오염지류 살리기 추진을 위하여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류를 대상으로 18개 개선 대상 지류를 선정하고, 오염 원인·분석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 축산형 등으로 주요 오염형태를 구분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살리기 사업완료 후 변화된 유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류 성과를 지류·지천으로 확산, 오염지류에 대하여 수질개선 통합관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미천 좋은 물 만들기 시범사업 주요 추진대책

올해 우리청에서는 대표적인 축산형 오염지류인 청미천을 대상으로 오염지류 살리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미천은 일반적인 하천과 달리 중·상류에 수질오염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상류에 많이 분포한 축산 농가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미천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47.4%로 저조한데 실제 현장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미처리 생활하수의 물 색깔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주요 오염 원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도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수질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뿐만 아니라, 개인하수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안내 리플렛 배포를

통한 교육·홍보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청 전부서가 청미천 유역내 11개 읍·면 지역의 부서별 담당제를 추진하고, 지역주민 대상 간담회와 환경교육, 하천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미천 좋은 물 만들기」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공감,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클린코리아, 샛강·도랑 살리기 등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전처럼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청미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청미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확산

팔당호 유입 유량의 60%를 차지하는 남한강 하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중간평가 결과, 청미천이 낮은 하수도 보급률과 축산 농가 집중 등으로 남한강 하류 중권역 주요 지류 중 가장 높은 수질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5년간('07~'11) 청미천 상류 평균은 BOD 4.2mg/L로 좋은 물 등급(BOD 3mg/L)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염이 심한 청미천을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지류·지천살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성공모델로 만들어 한강 수계 지류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 IBRD)에서는 지난 20세기가 석유의 시대(Black Gold)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Blue Gold)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최근 OECD에서 발표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담수 취수율(40%), 농지 등의 영양염류 과다에 따른 수처리 비용 과다 등으로 34개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가 가장 큰 국가로 밝혔습니다. 이는 물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2천 5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더 건강한 한강을  
물려주기 위해서 청미천 등 지류살리기에  
우리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